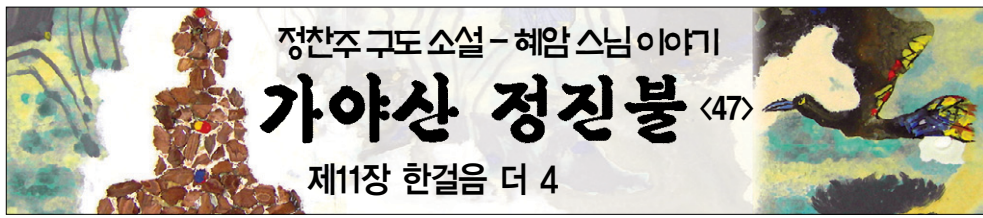


“헛이름 나면 무엇하나, 내 공부를 마쳐야지”



정찬주 구도소설 - 해암 스님 이야기
가야상 정진불 <47>
 제11장 한걸음 더 4

해인사 퇴설당에는 태백산 도솔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일타도 이미 와 있었다. 해암은 일타의 오도송을 좋아했다. 정진하여 득도한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계송이었다. 일타의 오도송은 사비와 열녀(熱惱)를 떠난 인락한 극락의 공간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마음속이나 마음 밖이나 새가 날고 꽃이 피어나 광명이 넘치는 세계였다.

물류 허룻밤을 잊고 지냈으니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頓忘一夜過 時空何所有
 開門花笑來 光明滿天地

단숨에 숲조린, 물 흐르듯 꽃이 피어나듯 한 계송이었다. 해암은 늘 일타의 타고난 재주와 재주를 인정했다. 반면에 일타는 해암의 한결같은 정진력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탐미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도반이었다. 두 사람의 성품대로 퇴설당의 정진 분위기는 서로가 따뜻한 기운을 주면서도 법을 공구할 때는 가차 없이 차가웠다.

해암은 침으로 오랜 만에 정진의 기쁨을 누렸다. 참선이 마음을 한없이 충만하게 했다. 마음은 순일하고 무집(無纏)한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세상의 오욕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기 누구고.”
 “묘관음사에 계시는 향곡 스님, 도선사에 계시는 청담 스님이 있잖습니까.”
 “하하하. 발발이 어둡다더니 나만 몰랐네.”
 “염주를 목에 걸고 염주를 찾는 격입니다. 하하하.”
 “마음에 맞는 세 사람의 도반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데이. 해암, 일타, 법전 수좌가 우리 해인사를 이끌어갈까라.”

해암이 즉시 반박했다.
 “중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어찌든 말씀입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알기라. 세월이 얼마나 빠르지는 아니. 지금 그것이 눈앞에 있는기라.”

성철이 세 사람을 두고 해인사를 이끌어간다는 말은 해인사 주지가 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해암은 3년 결사를 풀지 않을 수 없는 사건과 부딪혔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한참 솟구치던 선풍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방장이던 성철도 전면에서 나설 수 없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가 나서 어수선한 선방과 해인사를 다잡고 되돌려야 했다.

백련암으로 올라간 해암은 난감했다. 성철이 해암더러 해인사 주지를 맡아달라고 강권하기 때문이었다.

“절 분위기를 수습할 사람은 해암 수좌밖에 없다가

은 원칙대로 절 살림을 하라는 지월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다. 총무 스님은 수좌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해인사 선방 풍토에 반기를 들었다. 어려운 절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수좌들이 한 발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공양 음식도 강원과 울원, 선방 구분 없이 공평하게 했다. 선방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떡이나 과일 등의 특식을 올리지 않았다. 공양 때의 반찬도 가짓수를 줄이는 등 검박하게 바꾸었다.

어느 새 선방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주지스님 상좌가 총무를 맡더니 주지 행세를 하는 구먼.”

삼직스님들의 수좌들에 대한 불만도 컸다.
 “성질내는 내가 따로 있고, 도 뒤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인가. 도 뒤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이윽고 해인사 전대중이 모여 회의를 부치는 대중공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같은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모두에게 명분이 있었으므로 서로가 둘러서지 않았다. 대중공사도 무위로 끝나자 선방 수좌 몇몇이서 분기했었다. 주지를 믿고 선방 수좌들을 박하게 대하는 총무 스님을 겨냥했다. 몇 명의 수좌가 곡괭이를 들고 총무 스님 방으로 가 구들장을 파내버렸다. 구들장을 파낸 것은 해인사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었다.

그러자 지월이 대중 앞에서 모든 허물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고는 바로 주지를 사퇴했다.

“부덕한 소승이 주지를 맡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제가 큰 허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총무도 해인사를 떠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구들장 사건’의 여진은 오래됐다. 동안 거가 지나갔지만 대중들이 모이기만 하면 의견이 분분했다.

“중벼슬 담벼슬만도 못하다는 옛 스님들의 말도 듣지 못했는가. 삼직이 어떻게 공부하는 수좌를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선하는 수좌들만 공부하는 것인가. 부산으로 가는 길도 길이고, 서울로 가는 길도 길이지 아닌가. 도에 이르는 길이 어디 하나만 있는 것인가?”

“삼직스님들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는 동안 음식을 타박한 적이 있다. 살림이 궁핍하니까 전 대중이 끌고부 어려움을 나눠가져야지.”

“수좌들이 자신들만 도 닦고 있다는 상(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사건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는 것은 주지의 공백과 도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해암은 성철의 권유를 포 뿌리치지 못했다. 수좌들을 대표하는 유나 소임을 맡았으므로 자신도 ‘구들장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해암은 산철과 하안까지 5개월만 주지를 맡기로 하고 먼저 성철 방장스님 체제부터 다시 다졌다. 방장 스님을 바로 모셔야 선풍이 고양되고 총림에 기강이 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선객들은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일타가 해암을 위로했다.
 “해암 스님, 주지를 맡는 것도 하회중생의 일이니 그리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일타 스님이 주지를 하시는 게 어떻겠소.”

“아이구, 스님, 저는 공부할 것이 더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나 1년 뒤, 해인사 대중들은 일타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성철의 묵인 하에 해인사 주지로 선출하여 버렸다. 해암이 주지를 그만 두고 다시 공백이 생긴 1971년도의 일이었다. 그때 일타는 즉시 백련암으로



그림 · 최문정

수좌들 ‘구들장 사건’에 해인사 주지소임 공백

일타는 주지직 고사하고 도봉산 토굴로 떠나

포행 시간에는 일타와 함께 백련암 오르는 산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일타 스님, 스님의 오도송을 나는 사모곡이라 생각해요.”

“해암 스님, 사모곡이라고 했습니까.”

“스님의 어머니께서 스님을 중 만들라고 내원사 추금 스님한테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공부해서 대오하는 것이 크게 효도하는 일이지요. 그런 이치로 스님의 오도송은 사모곡이 되는 겁니다.”

“내 계송을 사모곡이라고 하니 속가 어머니 성호 스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출가 내력을 알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련암에는 성철이 주석하고 있었다. 성철은 그 산길을 이용해서 백련암을 오르내리곤 했는데, 산길에서 마주친 성철이 이런 말을 토로할 때도 있었다.

“두 수좌만 해인사에 있어도 절이 가득 차 보이는데 법전 수좌까지 합친다면 어찌하겠나. 서로가 믿고 당기고 탐미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이르러라. 이 세상에 세 수좌 같은 도반들도 없데이. 나는 부럽구마.”

“방장스님께서도 세 도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 나설 것이 뭐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잘 해결 될 것입니다.”

“지월 스님이 주지를 사퇴했어도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나. 배에 선장이 내리니 그런기라. 그러나 해암수좌가 주지 해라.”

“해인사를 떠나겠습니다. 일타 스님이나 법전 스님도 있지 않습니까.”

“허허,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 아이기. 지금은 강단 있는 사람이 나서야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는데이. 나도 책임을 지고 방장을 사퇴할까. 주지도 사퇴했는데 무슨 낯으로 가만 있겠노.”

“그건 안 됩니다. 더 소용돌이치고 말 것입니다.”

소위 ‘구들장 사건’은 해인사를 뒤흔들었다. 사반승인 삼직스님과 이관승인 일부 수좌들과의 마찰은 급기야 주지와 방장의 사퇴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사건의 단초는 일부 수좌들의 불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구들장 사건’은 지월이 주지를 맡고 있던 1970년 동안 거 중에 일어났다. 선방 정진만 하면 지월은 주지 같은 소임에는 흥미가 없었으므로 총무 스님에게 절 살림을 일임하다시피 했다. 지월의 상좌인 총무 도성

올라가 고사했다.

“방장스님께서서는 늘 ‘공부만 하는 중노릇해야지 사람노릇을 위해 중노릇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암 스님도 주지를 마다하고, 일타 스님도 마다하면 이 해인사는 어찌 되겠노.”

“스님, 저는 달아날(주)해, 갈(지)자 주지를 하겠습니다.”

“말 한번 잘한데이. 하하하.”

그날로 일타는 해인사를 떠났다. 이튿날 성철이 일타의 상좌 해국을 불렀다.

“스님, 달아났다. 해인사 주지 안할라꼬 도망갔다. 같이 입을 웃이나 갖고 갔겠나. 쟁겨서 갔다 드러라.”

해국은 사방을 수소문하여 일타가 간 곳을 알아냈다. 일타는 도봉산 한 토굴로 들어가 정진하고 있었다. 해국이 찾아가 인사를 하자 일타가 말했다.

“내가 오대산에서 연비할 때의 심정은 ‘한 세상 안 태어난 셈치고 이 한 목숨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노릇하는 데 심지가 세워졌던 것이야. 이 공부는 끝이 없는데, 큰스님이나 주지니 하는 이름이 붙기 시작하면 장애가 되는 것이야. 헛이름이 나면 무엇하나. 내 공부를 마쳐야지.”

결국 일타는 해인사 주지가 결정된 다음에야 돌아왔다. 지족암에 머물면서 안거 때는 퇴설당에서 정진하고 산철에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법문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해인사를 떠나 봉암사 백련암으로 간 해암은 다음 해 여름까지 숨어 지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광명화 보살이 찾아와 공양주를 했다. 그러나 그때 광명화 보살은 담석 때문에 몸도 기누지 못하고 발도 제대로 밟지 못했다. 오히려 해암이 광명화 보살의 공양을 챙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암이 광명화 보살을 때뵈치게 해 근했다.

“보살, 풀 앞의 풀을 뽑으소.”

“시님, 풀이 이 지경인데 어찌 풀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광명화 보살이 섭섭하여 투덜거리자, 해암이 불벼락을 내렸다.

“보살, 몇 푼어치나 아픈가!”

순간 광명화 보살은 몸이 가뿐해지면서 뭔가 머리를 스쳤다. ‘몇 푼어치나 아픈가!’란 언(言)下에 ‘이 뭐꼬’가 들렸다. 마당으로 나가 풀을 뽑는데도 ‘이 뭐꼬’가 사라지지 않았다. 비로소 보살은 해암을 시봉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깨달았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지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응명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어 대두하여
 영기가 내려와도 속지를 막지아라.
 불꽃이 나타날 때 그래야 도제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갈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